



한·중 정상회담 경제·금융 분야 성과에 대한 중국의 평가

이소양 연구원

■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·중 정상회담¹⁾ 성과 가운데 경제·금융 분야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.

- 이번 한·중 정상회담 경제·금융 분야 성과는 한·중 FTA(자유무역협정) 협상 가속화,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개설 및 RQFII²⁾(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) 한도 부여 등이 있음.
 - 양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·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.
 - 양국은 한국에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시장을 개설하고 서울 소재 중국교통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함.
 - 중국은 한국에 800억 위안(약 13조 450억 원) 규모의 RQFII 자격을 부여하고 향후 RQFII 활용 상황과 시장 수요에 따라 증액할 수 있도록 함.
- 한편, 이번 한·중 정상회담은 정치·안보, 인적·문화적 교류 및 지역·역사문제 등의 분야에서도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.³⁾

■ 다유뉴스(Dwnews)는 한·중 FTA가 연내 체결될 경우 양국의 경제협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·태평양 지역의 경제지형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.

- 지난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한·중 FTA 협상은 양국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그동안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놓고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 한·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연내 타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함.
 - 현재 한·중 FTA 협상은 2014년 5월까지 총 11차례 진행되었으나 한국측의 농수산물과 중국측

1) 이번 한·중 정상회담은 2014년 7월 3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짐.

2) RQFII는 해외금융기관이 위안화로 중국 본토의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.

3) 자세한 내용은 「박근혜 대통령·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정상회담 한·중 공동성명 전문」(2014. 7)을 참조함.

의 석유화학 제품 등의 관세철폐를 놓고 타결에 이르지 못하였음.

- 그러나 양국은 이번의 정상회담에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크게 좁히면서 한·중 FTA 연내 체결 방침을 확인함.

- 한·중 FTA가 체결될 경우 관세철폐, 시장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로 상품거래, 인적교류 및 자본투자가 자유화되어 양국의 경제협력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.
- 중국 국무원(國務院)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부 자오진핑(趙晉平)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한·중 FTA 체결을 계기로 한·중·일 FTA,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⁴⁾ 체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.
-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(ASEAN), 파키스탄, 뉴질랜드, 페루, 코스타리카, 스위스 등 12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으나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임.
- 반면 포괄적인 한·중 FTA는 중국이 일본, 호주, 뉴질랜드 등 선진국을 상대로 FTA를 체결하는데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고 해석됨.

■ 중국 시대주보(時代周報)는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개설, RQFII 한도 부여가 한국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, 역외 위안화 허브 형성, 위안화 국제화 진전 가속화 등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함.

- 직거래시장이 개설될 경우 중국기업 또는 한국기업은 달러화를 거치지 않게 되어 원화와 위안화의 환전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며, 또한 환위험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양국간 교역규모가 증가할 수 있음.
-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원화와 위안화 직거래가 되면 환전 수수료가 약 4~5%p(현재 환전 수수료가 약 7%)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함.
- 또한 직거래시장 개설 등으로 위안화 활용도가 높아지면 한국은 새로운 역외 위안화 허브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함.
- 현재 역외 위안화 허브는 홍콩, 대만, 싱가포르, 독일, 프랑스, 영국, 룩셈부르크 등이 있음.
- 이와 더불어 위안화 국제화 진전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분석됨.
- 국제은행간통신협회(SWIFT)에 따르면 2014년 4월 위안화 결제 비중이 8.7% 수준으로 위안화는 유료화를 제치고 2대 무역결제통화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.
- 한국의 위안화 무역 결제 비중은 2013년 1% 미만이나 향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.
- RQFII 한도 부여는 최근 불황을 보이는 중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임.

4) RCEP는 아세안 10국과 한국, 중국, 일본, 오스트레일리아, 뉴질랜드,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정임.

■ 중국 언론들은 이번 한·중 정상회담 경제·금융 분야 성과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여 달성한 가장 큰 결실로 평가함.

- 한편, 중국 정부가 이번 한·중 정상회담의 경제·금융 분야 성과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함.

(다유뉴스, 시대주보, 인민망, 신량망 등)